



### 공도(公道)



성태용

“하하~ 확실히 굉장한 생활화 무기가 국내대 철학과 교수”라고 그 기발한 착상에(실제로) 이 사진 본 사람들 모두 다 웃었다. 실소를 머금으면서도, 뒤에 오는 쓸쓸하고 심란한 마음에 사월의 화창한 날에서 오면 설렁히 다 날아가 버렸다.

미국이 그토록 침공의 구실로 내세웠던 생활화 무기는 어린이의 오줌 말고 진짜 있는 것인가? 아니 있든 없든 상관 없는 것일까? 후세인의 폭정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란 침공의 정당성을 따지는 일조차 의미 없게 되어버리는 분위기로 휩쓸려 가는 것조차 미국의 계산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문제는 유엔조차도 억제력을 잃고, 이제는 아무도 미국이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으며, 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쓰는 국방비 총액을 앞지르는 엄청난 비용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 그 미국이 도덕성을 지녔다는 믿음이 거의 사라져 버린 오늘, 내일의 세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후세인 정말 나쁜 짓 너무 했다군!” 하는 분위기에 빠져 넘어갈 일이 아니다. 막 하는 말로 그 나쁜 후세인은 부시가 때렸다 치자. 그런데 만약 부시가 나쁘다면 누가 때릴 수 있는가 문제 아닌가?

단순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도(公道)가 바로 서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세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 광림사, 장애인 결혼 주선



“결혼하고 싶은 장애인들 모이세요.” 광림사 연회복지원이 ‘연화 장애인 무료결혼상담소’를 7월 개원한다. 상담은 전화와 인터넷(www.kwan.grimsa.net) 등으로 진행되며, 성 상담에서 불우 장애인 결혼 상담까지 프로그램이 알차다.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원하는 배우자를 찾아주는 ‘맞춤 주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잘 장애인들. 활짝 웃을 이들의 미소가 기대된다. (02)2202-5831

### 장군속미

### ‘종교차이’로 헤어진 연예인 커플



연예인 커플이 종교 차이로 헤어졌다고 한다. 12살 차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워던 윤다훈, 이태란 씨가 바로 그들. 이들은 지난 11일 결별을 전격 선언했다. 갈등의 발단은 불교를 믿는 윤씨 집안과 개신교 신자인 이씨 가족 사이에서 비롯됐다. 이씨의 어머니가 윤씨뿐 아니라 집안 가족 모두의 개종을 원했다는 것이다. 신앙의 차이가 빚어낸 이들의 결별.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요즘 청년실업, 특히 대학졸업자들을 포함한 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졸업장이 취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용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2003년 3월 현재 20세에서 29세 사이의 대학 청년 실업률은 8.0%이며, 실업자 수도 20대가 37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높은 청년실업률은 그 동인의 무리한 대학 증원과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의 초과공급 현상이다. 기업이 신규공채보다는 경력자를 위주로 수시 채용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 듯하다. 1980년대의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처한 교육 기회의 확대 조치가 차후에 배제되는 노동력의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뤄졌던 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고학력자들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인적자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인적자원은 실물자원과는 달리 축적에 많은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각

## 실업...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돼야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개인의 고유한 생애에 대한 계획에 의해 수립된다. 노동시장의 적응과정에서 청년층 노동력이 적절한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여 상실된 인적자본의 축적의 기회는 이후에 쉽게 보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의 고학력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력수급정책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형성해야 한다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고학력청년실업대책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급자는 나름대로 교육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특성상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모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커리큘럼을 바꾼다면 대학의 학문적 위치와 교육본연의 임무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은 그야말로 학문적 요구와 열망에 의해서

## 열린마당 불교 출판계의 현주소와 내일

23일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지만 불교 출판사들의 규모와 경영구조는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불서 발간은 양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중화의 실패와

러 가지 요인으로 독서인구는 타종교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 있다. 불교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불교 출판계의 현주소와 내일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 재미, 감동 주는 책 위해 모두 하나될 때

### ■전문필자 부족, '문서포교' 소신 가져야

불교계 출판사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적인 영향도 크다. 통계상 불교인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은 1권도 채 안 된다. 불교인구는 1천만인데 비해 1년에 팔리는 불서는 7백만 부밖에 안 된다. 이는 타종교인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협소한 숫자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우선 철저한 선불교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불교 현실에서 일선 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이 독서를 별로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심 포교당에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문자에 집착하는 것은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독서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 출판사들만의 힘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박한 현실이다. 사찰도서관 확충이나 종단 차원의 지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서포교라는 거창한 명에(?) 뒤에는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판계 외적인 문제이다.

둘째, 필자부족 현상을 꼽을 수 있다. 한문으로 된 전문 특수용어가 많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줄 능력이 있는 전문 필자들이 부족하다. 셋째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불서의 범람이다. 책을 출간하기 편한 시대에 살아서인지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별로 변한 게 없다. 일반출판과는 달리 필자들은 문서포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진실한 탐방을 출려야 할 것이다.

윤창화(민중사 대표)

### ■기획·마케팅 부족이 '영세' 탈출장애

불교출판도 전체 출판계의 경향이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불교라는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판매의 주 대상도 불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포교와 상업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불교의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이루는 학술서적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 신생활동과 관련된 서적은 일종의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전류는 주요 경전 몇 권을 제외하고는 판매를 보장하기 어렵다. 흔히 불교출판사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 기획력과 마케팅의 역량 부족을 꼽는다. 실제로 불교계 출판사에서 기획만을 담당하는 인력은 전무하다. 마케팅도 주로 서점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하는데 그것도 규모가 큰 몇몇 출판사에만 있어 마케팅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도, 발빠르게 정보를 얻어 이용하지도, 독자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도, 광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홍보를 하거나 이벤트를 마련하지도, 세련되고 탐나는 편집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 마인드의 부재가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합병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인재와 자본을 결집시키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시열(운주사 사장)



◇윤창화대표

◇김시열 사장

◇김동숙전무

###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불서 만들어야

불교 출판물, 불서의 대중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불교 출판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해 오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선 불교 출판물의 대중화란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불교출판물이 종교 서적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취급을 받는 대중화는 어렵다. 불교 출판물의 수요자가 불자들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즐겨 읽을 수 있는 불서를 펴내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나는 이 문제를 먼저 풀면 모든 답이 저절로 나온다고 본다.

불교 책은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쉽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 조잡해지기 일쑤다. 불서는 진리에 대한 감동과 삶의 영양분이 묻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들의 노력과 출판사의 기획이 절대적이다. 작가의 노력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손을 댄 수 없이 이야기를 전개해 깊은 진리의 향기를 전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출판사의 기획은 시대의 흐름과 세대별 계층별 문화적 특성, 사회 문화의 변화 등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상품 만들기'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재미있는 책, 감동과 가르침을 주는 책은 반드시 읽힌다. 불서야말로 그런 책의 속성에 가장 근접해 있다. 불서의 대중화, 그 열쇠는 바로 '재미'와 '감동'이다.

김동숙(우리출판사 전무)

##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  
성광수씨

##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아인계인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한 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0047

## 봉은승복사 합심매장

불법승 상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종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제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안내



### 가격안내

- ◆ 모직혼방 ※ 20만원이상 구매시 티셔츠 1장 증정함 ※
  1. 두루막 110,000원
  2. 장삼 180,000원
  3. 동방바지 140,000원
  4. 적삼바지 100,000원
  5. 개량복 (소할인금액식) (여) 80,000원 (남) 90,000원
  6. 조끼, 바지 50,000원
  7. 반가사 50,000원
  8. 대가사 80,000원
  9. 책가방 25,000원
- ◆ 천연염색 (회색, 방색, 흰색, 옥색, 황토색)
  1. 티셔츠 20,000원
  2. 바지 25,000원

### 온라인 은행구좌

- 국민은행 : 617-21-0388-842
- 우체국 : 701227-02-029554
- 예금주 : 박철오

## 봉은승복사

전화 : 053)421-5451 / 053)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대리점 모집합니다

